

# GM, 군산공장 '2차 희망퇴직 → 정리해고'

### 영글 GM 사장 "우선순위 아니지만 정리해고 할 수 있어" 군산공장 노조 "더 떨어질 곳 없다" 2박3일 노숙투쟁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직원들에 대해 2차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정리해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지엠 노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배리 영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28일 일한택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비공개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배리 영글 사장은 노조로부터 680명의 군산공장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희망퇴직일수도 정리해고 일수도 있지만 정리해고를 우

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영글 사장은 "2차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권한이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산공장은 비용절감과는 별도의 부분이니 고용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해보자"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는 (잡정합의에) 사인부터 하고 논의를 하자는데, 교섭을 해주면 직원들을 다자를 게 눈에 보인다"며 "정리해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회사 권한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누적된 적자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고 있고, 희망퇴직 조건도 내걸었는데 안 나간 걸 어떻게 하겠느냐"며 "노조 측에서 물어보니 추가적 희망 퇴직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니 고용특위를 열어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 2500명으로부터 군산공장 직원은 1500명으로 이중, 8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현재 680명이 남은 상태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는 28일부터 상경투쟁에 나서 군산공장 폐쇄 철거를 요구할 방침이다. 군산지회는 "27일 비대위·쟁대위 7차 연석회의를 열어 군산 조합원들이 상경, 2박3일 노숙투쟁과 현장순회를 통해 지부와 지회에 군산공장의 현실을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질치는 GM을 더 이상 버들 수 없고, 군산지회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며 "악랄한 GM자본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족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배·복숭아 꽃 피는 시기... 평년과 같거나 6일 빠를듯

올해 배·복숭아의 꽃 피는 시기가 평년과 같거나 6일 정도 빠를 전망이다. 이에 배·복숭아 등 과수 농가는 인공수분 등 개화기간 동안 이뤄지는 작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만개기 예측 프로그램으로 지난 23일 기준 배 '신고' 품종과 복숭아 '유명' 품종의 꽃 피는 시기를 예측한 결과, 평년과 비슷하거나 6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28일 밝혔다.

배 '신고' 품종의 만개기는 남부지방 인 울산 4월 10~12일, 광주 4월 8~10일, 안동 4월 18~20일로 평년과 같거나 5일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중부지방인 수원과 천안은 4월 20~22일로 평년에 비해 1~3일 빠르며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복숭아 '유명'은 남부지방인 청도 4월 10~12일, 중부지방인 이천·원주 4월 19~22일로 평년에 비해 3~6일 빠를 것으로 추정됐다.

강원도 춘천(4월 21~23일)과 충북 충주(4월 20~22일)는 평년보다 1~4일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

농촌진흥청은 배·복숭아 등 과수농가는 조기개화에 대비해 인공수분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화기에 건조하면 암술의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작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공수분을 1회에 그치지 말고 2~3회 실시하는 게 좋다고 재언했다.

/최수호 기자



### 쌀 생산조정제 성공 추진 결의

## 쌀 수급·가격 안정 추진

### 전북농협, 쌀 생산조정제 성공 추진 결의 다져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8일 전북 관내 신임 대의원 조합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 추진 결의를 다졌다.

지난 27일 기준 신청면적은 전국은 1만4,720ha(목표 5만)로 29.4%, 전북은 3,475ha(목표 7,841)로 44.3%를 달성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했으며,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쌀 생산조정제는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논에 타 작물을 재배 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최근 산지쌀값 회복과 목표가격 상승기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신청이 저조한 상태이다.

/최수호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 세계경기 회복세... 2분기 수출도 호조예상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2분기 수출도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8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59.3으로 전 분기에 비해 0.8p 상승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수출 호조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주재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치인 '수입국경기지수'는 모든 지역에서 전분기 대비 상승하거나 기준치(50)를 웃돌아 전세계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했다.

지역별로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79.5)가 이전 분기 대비 4.8p 증가하여 수출전망지수가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유럽(71.2), 북미(64.9), 중동아프리카(57.6) 지역도 각각 13.6p, 6.8p, 7.1p 증가, 전 분기 보다 더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중국(59.9)과 CIS(59.3)의 경우 전 분기보다 지수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광디스플레이·가전·자동차부품 및 유망소비재(화학품·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수출 전망이 밝았다.

가전제품(79.8)은 전분기 대비 21.2p 증가해 가장 높은 수출전망지수를 기록했다. 평판디스플레이(71.5)와 화장품·의료기기·의약품이 포함된 '기타' 품목(70.5)을 비롯해 자동차부품(67.8)과 무선통신기기(67.7)도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수출 호조가 예상된다.

반도체는 2017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 수준(50.1)을 유지해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개의 보조지수 중 수입국경기지수(61.4)는 전분기 대비 5.2p 상승세를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지수 상승, 있음을 반영했다. 특히 CIS, 유럽, 아메양주, 중국, 북미 지역의 경기전망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제품의 품질경쟁력에 대한 평가지수(53.7)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다. 반면 가격경쟁력지수(47.6)는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음에도 8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이 품질경쟁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코트라 수출선행지수는 한국제품을 수입하는 해외바이어와 주재상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김선화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년의 전망치 보다 크게 상향 조정하는 추세"라며 "해외시장 수요를 반영한 코트라 수출선행지수도 이러한 세계 경제 회복세에 부응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약화된 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수호 기자

##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코앞에 두고 '발목'

### 지난해 2만9745달러... "올해는 진입 가능"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대 진입을 코 앞에 두고 발목을 잡으며 12년째 2만달러대에 머물렀다.

다만 올해는 3만달러대 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를 달성하며 3년 만에 3%대에 안착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7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2만974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3%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한 영향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처음으로 2만달러대를 돌파한 뒤 12년째 3만달러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 달러화로 표시된 명목GNI를 추계인구로 나눠 산출되며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3만달러대 진입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관문처럼 여겨진다. 지난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로 3만달러대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원화 강세 등이 뒷심을 쓰지 못해 끝내 발목을 잡았다.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규일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인당 GNI는 명목GDP와 환율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올해 3만달러 넘어서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 지난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2015년 2.8%, 2016년 2.9%로 2년 연속 2%대에 머물다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한 것이다. 2016년 성장률은 잠정치 2.8%에서 0.1p 상향조정됐다.

성장을 3%대 달성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지난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급증한데다 민간소비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해 2010년(22%)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전년(10.3%)보다는 뛰었지만 7.6%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민간소비(2.6%) 증가율도 전년(2.5%)보다 다소 호전됐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속보치와 동일하게 -0.2%를 기록했다. 3분기 1.4%라는 '깜짝 성장'을 달성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던 탓이다. 명목 GDP는 173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 증가했다. 지난 2010년(9.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의 소득을 보여주는 1인당 가계 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만6573달러를 기록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4.1% 늘어난 1874만 2000원을 기록했다.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지난 2012년(2.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무역이익이 늘었지만,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순소득(실질 국외순취요소소득)이 축소된 영향이다.

/뉴시스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